제주사회복지신문

제56호

2012년 6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 발행인 : 이동한 > 편집인 : 김수완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8길 12-1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자신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 돕는 '천사'

지체장애 1급 양영순씨 20년 넘게 옷수선집 하며 동료 장애인에 '무한나눔'

5월 19일 오전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내 '카니스메이져'. '드르르륵, 드르르륵' 미싱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다. 6.6㎡(2평) 남짓한 공간에서 양영순씨(58·여)가 부지런히 재봉틀을 돌리고 있었다. 지체장애 1급인 양씨가 운영하는 옷수선집이다.

그는 이 비좁은 곳에서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꼬박 11시간을 보낸다. 생후 9개월 때 소아마비를 앓아 휠체어와 목발에 의지해야 하는 탓에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일을 한다.

지난 1992년 옷수선집을 차렸으니 벌써 20년 넘게 이 같은 고된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홀어머니 밑에서 다섯 남매 중 셋째로 자란 그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 문턱도 밟지 못했다. 남들은 한창 학창생활을 즐길 나이인 17세 때 일찌감치 의상실에 취직했다. 일면식도 없는 사장을 만나 '일하고 싶다' 고 떼를 쓴 끝에 겨우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2년간 시다(보조)로 일하며 틈틈이 미싱 기술을 익혔다.

1977년 당시 23세의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 10여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다 경제적 이유로 문을 닫아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1992년 지하상가에 옷수선집을 냈다. 이때부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다.

그가 동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다.

1984년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러 갔다 깜짝 놀랐다. 자신보다 훨씬 장애가 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눈에 휘둥그레졌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동료 장애인들을 도와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 해 뜻이 맞는 지체장애인 40여명과 함께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를 만들었다.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목장갑 공장을 차리는가 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옷수선집에 동료 장애인들을 견습공으로 채용해 기술을 익히게 한 뒤 점포를 독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03년 문을 연 제주장애여성상담소 개소에도 앞장섰다. 삶은 힘겨웠지만 더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옷을 사주고 쌀도 대줬다.

그는 1991년 동료 장애인들과 함께 한라산 등반에 나섰다. 휠체어와 목발을 사용할 수 없어 엉금엉금 기어서 이틀만에 정상에 올랐다. 무릎이 다 까지고 손바닥은 부르텄다. 자식들에게 자랑스런 엄마가 되고 싶었다.

2002년 인도네시아 여행 때 생긴 일화도 있다.

여행 첫 날, 한 식당 앞에서 다 부서진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애인을 목격하곤 자신이 타고 있던 휠체어를 선뜻 내줬다. 새 것이나 다름없는 휠체어를 선물 받은 장애인은 고마움에 한동안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대신 양씨는 여행 내내 남편이 업고 다니거나 목발을 짚어야 했지만 마음만은 뿌듯했다.

가난과 장애, 무학(無學)이라는 열악한 조건을 딛고 일어선 양씨는 2009년 올해의 장애인상을 받았다.

현재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 화북동 분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10년 넘게 정기 후원금을 보내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양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내가 갖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웃과 나누며 살다보면 행복이 절로 찾아온다"고 말했다.

복지소외 계층 59명 발굴

제주특별자치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소외계층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 59명을 찾아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복지 소외계층 집중 발굴 기간 동안 59명의 소외계층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1명은 직권조사를 통해 발견됐고, 본인이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해 발굴된 인원은 38명이었다.

새로 찾아낸 복지 소외계층을 유형별로 보면 노인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6명, 아동 4명, 정신질화 의심자 등 기타 21명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병원(5명)이나 숙박시설(2명), 창고·컨테이너(1명)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43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16명은 긴급복지 지원, 민간 후원, 시설 입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면소개

- 종합 ..... 2·3면
  - 전국 독거노인 전수조사 추진
  - 시설 탐방 -제주장애인인권포럼
- 사회복지소식 ..... 4·5면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 행사
  - 중증장애인 일자리 걱정 던다
- 오피니언 6면
  -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 영유아 보육 관련 토론회2제
- 기획 8면
  - '이웃사랑 자원봉사' - 미용봉사자 박은영씨
  - '이웃사랑 식품나눔' - 산방미곡 오영봉씨

6월 사회복지시설·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7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jtnews@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행사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 내용	일시·장소	문 의
제주종합사회복지관	토요아카데미 '즐거운 토요일	박물관 견학, 역사문화체험 등	6월부터 진행	753-2740
제주가족사랑상담소	의사소통 훈련 워크숍	가족과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 등	23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726-3277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도협회	2012년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공연발표회, 작품전시회 등	8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한라체육관	799-2112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가는 책을 좋아해요' 북스타트 프로그램	신문지·그림자 놀이활동 등	5~21일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725-8005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영화제 비경쟁부문 공모	극영화, 다큐멘터리, 에니메이션 등	22일까지 출품작 접수	756-7261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1004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기술기능봉사단, 교육학습봉사단 등	연중 모집	702-3784
	6월 사회복지 아카데미	사회복지 홍보교육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jejubokji.net) 참조	702-3784

전국 독거노인 전수조사 추진

2000년 54만 → 2012년 119만명… 전체노인의 20%

복지부, 일자리 우선 제공 등 종합지원대책 마련

앞으로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 현황 조사가 실시되고, 빈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가 우선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독거노인이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노인돌보미를 통해 전국적으로 독거노인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해 안부확인서비스나 민간 자원봉사자와 1:1 결연 등을 추진해 독거노인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독거노인 지난 2000년 54만명이었던 것이 올해 119만명으로 2.2배 증가했으며 2035년에는 343만명이나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독거노인이 20.2%를 차지한다.

차상위계층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 독거노인에 대해 노인 일자리 신청시 가산점을 주고, 맞벌이 부부의 '나홀로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로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가족간 유대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가족사랑의 날' 부모님께 안부전화하기 운동 등을 진행하며, 독거노인끼리 '사회적 가족'으로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이나 친목모임을 지원해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독거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치매 조기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만성질환을 앓는 빈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연고가 없는 독거노인이 사망할 경우 장례를 존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독거노인 집에 화재 및 가스유출 감지기, 목걸이와 팔찌로 제작된 응급호출기 구비 ▲콜센터 직원·자원봉사자의 안부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老)-노(老) 케어 대폭 확대 ▲독거노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인돌보미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소외계층 문화바우처 사업 시행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문화소외계층에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의 관람이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문화카드를 발급받은 후 연간 5만원 한도 내에서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장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를 통해 티켓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문화 카드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뒤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청소년 추가 발급은 가구당 7명(최고 35만원)까지 신청 가능하고 보호자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복지시설 거주자인 경우 미신고 시설 거주자는 제외된다.

제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는 "문화카드를 이용하면 이용자가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해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724-9004

보조금 전용카드제 7월 시행

도내 사회복지시설 263곳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사용할 때 인건비와 조달계약, 공과금, 1만원 미만 소액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이 아닌 전용카드를 쓰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입·출금을 담당하는 은행 등과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명의의 전용계좌 개설과 전용카드 발급을 완료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전용카드 사용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조금 전용카드제가 시행되면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한 회계결산이 가능하고 결제 내역이 실시간으로 사회복지시설 통계시스템으로 전송돼 제주도와 행정시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대상 시설은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아동 관련 복지시설 등 도내 263곳이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민간보조금통합시스템에 각각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별로 개별적인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 등으로 보조금이 집행돼 시설 종사자 회계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적정 집행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보조금 전용카드제가 시행되면 세출항목 무단 전용 및 탈법적, 부적정 보조금 집행사례 사전 통제기능이 강화돼 회계 분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 비용 지원

제주시는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위해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융자지원 대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 또는 가정 어린이집 중 안전과 관련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다.

사업별 지원 금액은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놀이시설 개선, 공기질 개선, 시설 개선은 최대 2000만원이며, 시설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어린이집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며, 분기별 변동금리(2분기 현재 3.55%)가 적용된다. 융자를 원하는 어린이집 대표는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591)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7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융자추천을 하고, 금융기관이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서지역 노인 무료진료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서귀포의료원과 한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등이 참여한 가운데 5월 16~17일 이틀간 가파도와 마라도를 찾아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를 펼쳤다.

道, 노인일자리사업 최우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시도로 선정됐다.

서귀포시는 전국 우수 시군에, 서귀포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차 자체평가, 2차 시도 교차평가, 3차 현장 평가로 진행됐으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참여자 모집 및 관리, 사업추진 성과평가 등의 항목을 평가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8곳에 맡겨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결과 모두 2677명의 노인이 참여했다.

제주도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분야에서 S등급을 받았다.

제주시, 자활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제주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1년도 자활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시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자활사업 평가 결과 1위를 차지해 오는 9월 7일 '제13회 사회복지의 날'에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는다.

제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자활사업 참여 및 기초수급자 탈수급률, 취·창업 실적,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자체 지원 실적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시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자립 지원 등 생산적 복지 시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수눌음지역자활센터 등 2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6개 자활근로사업단을 구성, 600여명이 참여해 수급자의 탈수급을 돕고 있다.

또 창업형태인 12개의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청소, 간병 등 서비스 사업을 펼치고 있다.

부랑인복지지설 기능 전면 개편

부랑인복지시설이 노숙인재활시설로 기능이 전면 개편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부랑인복지시설이 노숙인재활시설로 기능이 개편된다.

부랑인, 노숙인 등 그동안 집없이 거리를 떠돌며 생활해온 사람들의 명칭이 '노숙인'으로 통일된다.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부랑인시설인 제주시립희망원도 노숙인재활시설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립희망원의 입소자는 83명으로 신체·정신적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근로 능력이 떨어지지만 대부분 일상 생활은 가능하다.

시립희망원은 알코올 의존 및 남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입소자들을 위해 재활 치료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랑인복지시설의 기능이 개편되면 보다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탐방 (55)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 인권 · 권익 보호에 앞장

복지정책 · 의정모니터링 · 인권상담 활동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야간학교 등 운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존엄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사회적 시스템과 안전망이 작동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장벽은 높기만 하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심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과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권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바로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고현수)이다. 5월 16일 제주북초등학교 뒤편에 자리한 장애인인권포럼을 찾았다.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장애인인권포럼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장애인의 기본적, 보편적 권리를 추구하고 장애인과 지역사회 간 쌍방향 소통을 지향한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역사를 더듬어보면 이렇다. 지난 2002년 창립한 '자립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모태가 됐다. 이후 2003년 12월 '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로 명칭을 변경했고, 2008년 3월 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통합, 지금의 제주장애인인권포럼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셈이다.

설립 취지는 명확하고 분명하다.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 정치 참여 보장이 바로 그 것.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제도, 법률 등을 만들고 시행할 때 최우선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야 할 장애인들은 정작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채 일부 전문가 위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을 단순히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여기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장애인인권포럼 측은 지적한다.

그렇다면 장애인인권포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

우선 장애인의 인권 옹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인권 · 빈곤상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비롯해 빈곤 문제를 상담해 주는 기구다.

장애인의 시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과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토론회와 강연회 개최, 각종 정책 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또 도시환경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부설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활동보조인 파견사업과 동료상담가 양성, 이동차량 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보장구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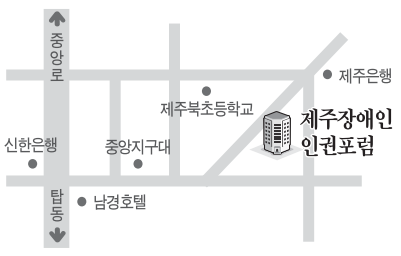
2004년 설립된 '제주장애인야간학교'도 장애인인권포럼의 부설기관 중 하나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초 · 중 · 고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내에 문을 연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역시 장애인인권포럼이 운영하는 부설기관이다.

장애인인권포럼 내 중증 장애인 소그룹 자조모임인 연극단을 비롯해 노래패, 풍물패, 미디어패, 노래밴드 등은 매년 12월에 '제주장애인예술제'를 열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합동 공연을 펼치고 있다.

고현수 상임대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단순 복지가 아닌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751-8097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평안전문요양원 등 최우수기관

제주도내 장기요양기관 5곳이 정부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 14일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319곳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내에서는 30인 이상 기관 가운데 평안전문요양원과 소망요양원,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관에서는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와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10인 미만 기관에서는 아노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기관운영을 비롯해 환경 · 안전, 권리 ·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영역에서 98개 지표가 사용됐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최우수기관에 대해 기관 평균 2400만원, 최고 2억600만원까지 모두 76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한편 최우수기관 마크도 교부키로 했다.

지적장애청소년 골프교실 운영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지난 4월부터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Golf(골프)-드림하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골프 교실은 장애청소년의 집중력 강화와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복지관 내 실내골프연습장에서 수업이 진행되며 장애인체육회, 장애인골프협회 등과 네크워크를 구축했다.

골프 수업뿐만 아니라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오름 등반, 골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도내 · 외에서 열리는 골프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복지관은 현재 골프 교실 외에 장애청소년이 참여하는 탁구, 볼링, 수영 등 5개의 스포츠 동우회를 결성, 운영하고 있다.

임태봉 관장은 "장애인들이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동실종예방 이름표 달아주기 캠페인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제주지방경찰청,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와 공동으로 제주시 애월읍 제주경마장에서 '실종예방이름표 달아주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 기관은 이날 행사에서는 미아 방지를 위해 보호자의 연락처와 아동의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달아주고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는 플래시몹(일정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일제히 같은 행동을 벌이는 이벤트)을 선보였다.

또한 실종유괴예방수첩과 호루라기, 물티슈 등을 나눠주고 아동의 안전을 의미하는 '노란리본'을 가슴을 달아주는 등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역주민과 희망의 복지공동체 구현"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 축제 개최
조성태 관장 "주민 복지 증진 위해 더욱 힘쓸터"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온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 · 얼굴사진)이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24일 제주시 아라동 아라주공아파트단지 내에서 주공아파트 입주 및 복지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가족한마당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윤두호 ·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신동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지역본부장, 강승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오전 10시20분 풍물패의 길트기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에 이어 문화공연, 레크리에이션,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제주성안교회와 구둘회 등이 기관장 표창을, 이경빈씨 등 3명이 사회복지협의회장 감사패를, 김창심씨 등 2명이 복지관장상을 받았다.

이날 오후에는 노래 등 문화공연과 레크리에이션, 아나바다 장터, 보물찾기,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등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지난 1992년 8월 문을 연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그동안 '지역주민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여가와 자활 지원, 야간보호, 보건의료 서비스, 도시락배달, 교육문화 서비스 등이 대표적 사례다.

복지관은 현재 가족복지사업을 비롯해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교육문화, 자활지원, 재가복지, 등 7개 분야의 맞춤형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복지관에는 해마다 많은 봉사자들이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아라주공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한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경로당, 강당, 교육실, 목욕탕, 이 · 미용실 등을 갖추고 있다.

조성태 관장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복지관을 주민 복지 요람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학대 어르신 대상 쉼터치유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제주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와 공동으로 4월 13~26일 주2회, 4회기에 걸쳐 피학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쉼터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식물원 나들이, 국학기공, 비즈공예, 원예치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피학대 어르신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식물원의 화려한 꽃과 예쁘게 꾸져진 정원을 감상하고 명상을 통한 호흡법과 기치료법을 배웠다. 또 비즈로 팔찌를 만들어 착용하고 수생식물 화분도 만들었다.

김선희 관장은 "어른신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소/식/마/당

창암재활원, 봉사단체와 봄나들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창암재활원(원장 박광수)은 5월 16일 대한항공 다솜마루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봄 나들이로 제주돌문화공원을 다녀왔다.

중증장애인들은 이날 돌문화공원 내 박물관을 관람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숲길을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솜마루 봉사단체는 해마다 봄 나들이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아가의집, 어울림한마당 축제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박두현)은 5월 12일 제주시 조천읍 조천체육관에서 가족,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울림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줄다리기, 공굴리기, 땅따먹기 등 다채로운 게임을 하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아노제노인요양시설, 시설 증축 준공식

아노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4월 21일 목욕탕 및 시설 증축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목욕탕 등 시설 증축은 영주로타리클럽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아노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이날 어르신들과 영주로타리클럽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잔치를 열었다.

제주축협, 케어하우스에 축산물 후원

제주축협(조합장 고성남) 관리과 직원 일동은 5월 19일 제주케어하우스(원장 김정현)를 찾아 50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전달했다.

이번에 후원한 축산물은 제주축협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구입한 것이다. 제주케어하우스는 후원받은 우족과 사골류 등 축산물을 이용자들을 위해 사용했다.

Dilly 패밀리레스토랑, 조손가정 후원

Dilly 패밀리레스토랑(대표 장무명)은 5월 19일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 조손가정지원센터(센터장 박차상) 조부모와 어린이를 초청,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기념선물을 주는 등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 레스토랑은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안복지재단에 1000만원의 조손가정지원 사업비를 지원했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무료 이미용서비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관장 한도실)는 제주한라대학교 뷰티아트과와 연계,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뷰티아트과 헤어실습실에서 취약계층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는 '여성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지난 2010년 4월 문을 열었다.

아동센터, 화재 안전교육

봉아름지역아동센터(시설장 임진희)는 5월 16일 제주소방서화북119센터를 방문, 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화재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센터 아동들을 119센터에서 화재 관련 영상을 보고 소화기 사용 체험 등을 하며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재 발생시 대피 요령 등을 배웠다.

임진희 시설장은 "아동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로대학 봄나들이 행사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은 4월 26일 복지관 부설 경로대학 중급과정 수료식을 가진데 이어 5월 3일 경로대학을 수료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봄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이날 제주조랑말 타운, 제주민속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걱정 던다

제주 최초 다수고용사업장 '엘린' 문 열어
숙박업 · 청소용역 · 여행사 등 3개 사업 운영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활 · 자립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제주지역에서도 문을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창암복지재단(대표 임상필)은 5월 18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엘린'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사업장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을 70% 이상 채용하고 중증장애인 비율은 60% 이상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문을 연 이 사업장은 숙박업과 청소용역, 여행사 등 3개 사업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제주시 연동에 있는 5층 규모의 아네모스호텔과 청소용역(엘린클린), 여행사(엘린투어) 사무실을 갖췄다.

'엘린'은 '행복한'이란 뜻의 라틴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엘린에는 13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오는 2014년까지 장애인 70명, 비장애인 15명 등 85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다.

엘린은 작업 환경이나 임금 수준에서 기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차별화를 꾀해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100만원 안팎의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창암복지재단은 근로 의욕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창암복지재단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근로 능력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활과 자립을 돕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아동 대상 학습지원 서비스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반디'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반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봉사자가 주말을 활용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학습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안정을 돕기위해 마련 됐다.

'찾아가는 반디' 봉사자는 제주여고 드림멘토 봉사단 회원 10명과 대학생 5명으로 구성됐다.

드림멘토 봉사단 박남주양(18)은 "다른 봉사활동에 비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아동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 이상 봉사자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꿈을 이루기 어려운 결손빈곤 아동 가정을 방문해 학습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통해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단절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학대피해 아동 위한 후원금 전달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방주교회(목사 김광건)는 5월 12일 지역 내 아동학대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했다.

방주교회 측은 "학대 피해아동들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작은 정성을 모아 그 마음을 전달하고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후원금을 학대피해아동 전용 그룹홈인 '아이오름'과 저소득층 가정 아동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긴급의료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고 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몸짱마음짱' 운영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최영열)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의 정서적 지원과 건강 증진을 위한 '몸짱(ZZang) 마음짱(ZZang)'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운영된다. 매주 화요일에는 수중재활운동, 수요일에는 요가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매달 넷째주 수요일에는 올레길을 걸으며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올레명상여행, 매달 셋째주 금요일에는 다양한 여가문화 체험을 한다.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은 물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금 전액 기탁한 고교생들

오현고 3학년 고기환군과 중앙여고 3학년 현진이양, 제주외고 2학년 신희연양 등 3명은 최근 제3회 전국청소년토론대회 고등부 영어 부문에 참가해 총장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유진재활센터에 전달했다.

중증장애아동 휠체어 제작

제주장애인요양원은 5월 초께 해비치컨트리클럽봉사동호회인 '해스코'의 후원금으로 뇌병변 중증장애아동 휠체어 2대를 제작했다.

해스코는 올해 2월 장애인요양원을 방문,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한 맞춤형 휠체어 제작비 500만원을 후원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제일지역아동센터(원장 박영식)는 어버이 날을 맞아 원광요양원 입소 어르신들과 삼화아파트단지 주민, 순복음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어르신들에게 센터 아동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천연비누와 녹두전을 만들어 전달했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해세요"
5월 식품기탁자

▲㈜금강축산유통=육류 380kg ▲서문식품=두부 534모,콩나물120봉 ▲김치원=김치 60kg ▲㈜삼다유통=삼다수 2L 1800병 ▲아산재단=쌀 200kg ▲이어도지역자활센터=채소류 75kg ▲이든이네=멸치 3kg ▲뉴월드마트 서사라점=인절미믹스 36개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잡곡 20kg, 생필품 20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2L 900병 ▲추자도영농조합=고등어 71팩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267봉 ▲익명=생필품 43개

사회복지협의회 2012년 4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890,000	890,000
난치병환아후원	70,000	0
자원봉사후원	355,000	355,000
복지사업후원	1,025,000	1,000,780
푸드마켓후원	2,700,000	5,108,78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칼럼

무연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無緣社會)

고 수 희
평안전문요양원 부원장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독거노인 수는 118만7천명으로 전체노인의 20.2%에 달하고 있어 노인 5명 중 1명이 독거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독거(獨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간섭이 없는 자발적인 독거생활을 선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노인 5명 중 1명 독거생활

즉 우리는 유연(有緣)의 속박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무연(無緣)을 지향하기도 한다. 다만, 그러한 무연의 결과가 때로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기도 하지만 말이다. 시마다 히로미(島田裕巳)가 쓴 '사람은 홀로 죽는다'라는 책에 언급되어 있듯이,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도시화, 핵가족화는 유연사회(有緣社會)에서 무연사회(無緣社會)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기도 했다.

무연사회라는 말은 2010년 일본 NHK방송의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진 것으로, 무연사회란 인간관계가 희박해짐에 따라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의 죽음조차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사회, 즉 인연이 끊긴 사회를 말한다. 과연 이러한 사회현상을 이웃나라 일본의 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우리사회의 현실은어떠한가?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이 소득,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어렵게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는 죽음을 맞이한 후, 한참이 지나서야 시신이 발견되는 독거노인 '고독사(孤獨死)'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독거노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압축하자면 빈곤, 질병, 고독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찾을 수 있는데, 빈곤한 동시에 건강하지 못한 독거노인의 경우 무연사회가 심화될수록 삶의 질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독거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보건복지부는 최근 취약한 상태로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독거노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자살 및 치매관리 강화', '소득 및 일상생활 지원 강화' 방안 외에도, 특히 '사회적 가족 구성 지원'이 눈에 띄는데, 이는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독거노인의 경우, 홀로 사는 노인들끼리 모여 '사회적 가족'으로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빈곤 · 질병 · 고독과의 싸움

이것은 경로당을 개조하여 낮에는 경로당, 밤에는 가정집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북 김제의 어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의 사례에서 그 희망의 씨앗이 보인 '함께살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며, 도시지역의 홀로 사는 어르신들간의 친목모임인 일명 '독거노인 두레모임'을 활성화시켜 상호지지체계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인연이 끊긴 사회에서 맺어지는 새로운 인연. 부디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다루어지기를 소망한다. 100세 시대,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독거노인이며, 결국 노인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고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를 위해

선 영 재
남원읍사무소 주무관

다문화 사회라는 말이 이젠 우리 사회에서 어색함이 없이 통용되고 있는 지금,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외국인을 만나고 이야기 하고 같은 공간에서 늘 함께 한다.

국제적 인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우리사회에 언어 ·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다문화 주의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혹은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 것이 현실이며, 결코 적지 않은 다문화 가족과 그들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융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공동체의식 속에 모두의 적극적인 이해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성숙한 다문화 사회의 정립을 위해 다문화 가정 큰 잔치, 바자회, 음악회 등 다문화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행사들을 주최하거나 후원하고 힘쓰는 걸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과 낮은 학업성취도 문제를 해결하여 그들이 내면으로부터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취학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금,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정규교육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고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사회구성원 개개인 모두가 다양성을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방법을 학습하고 실질적인 공동체 의식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다문화 사회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경제 한파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살아갈 힘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고집하지 않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의 도래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 사회 구석구석 어두운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 가족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내 몫이라고 여기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이다.

피부색과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사회,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며 단점을 고쳐나가는 사회가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아닌가 한다. 이제, 진심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야할 때이다. 내 가족으로 품고 함께 했을 때 비로소 성숙한 다문화 사회의 완성을 기대해 볼 일이다.

시론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변 태 엽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장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각종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투입된 재원이나 노력으로 인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정책 시행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복지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등으로 복지예산은 점점 더 빨리 증가되고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는 데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복지 전달체계의 복잡성과 중복성, 편중성 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예를 들면 방문 돌봄 사업의 경우 가사간병, 노인돌봄 등 13개 사업을 80개 기관 · 단체에서 연인원 6만5000명을 대상으로 2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사업의 추진 주체인 기관 · 단체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없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도 되지 않는 등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처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공적 급여와 민간의 지원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이 집중되면서 법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자립 · 자활정책이 미흡한 것도 체감도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도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여 보다 효율적인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과 함께 누수 되는 재정을 찾아내어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체감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큰 틀에서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복지급여는 공공전달체계에서 맡아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차상위 등 저소득층이 수급권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민간복지자원을 최대한 집중시킴으로써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도에서는 오늘 10월까지 제주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모델 개발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우리 제주에 가장 걸맞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도의 복지행정은 행정과 민간의 분명한 역할분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지원과 관리는 행정에서,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수급권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복지행정 지원은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간과하지 못하는 일 중의 하나는 우리 이웃 중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을 보는 것일 것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가장 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 때 진정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본다.

영유아 보육 관련 토론회 2제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즉각 시행해야"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 토론회

제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친환경급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집 아동들에게도 안전한 친환경우리농산물을 제공해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대 고양숙 교수(식품영양학과)는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와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보센터 공동주최로 5월 18일 제주한라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린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에 따른 토론회'에서 '어린이집 친환경급식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고 교수는 "제주도는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영유아 급식시설까지 확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004년 7월 제정된 '제주도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현재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에 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어린이집만 아직까지 친환경 급식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친환경 급식은 국내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한 친환경 식단으로 운영되는 급식을 말한다

고 교수는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한 균형 잡힌 식사와 식습관 형성은 어린 시기일수록 더욱 중요하다"며 오히려 취학 전 시기인 어린이집에서의 친환경 급식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돈이다.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시행을 위해선 정부와 지방정부에서의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식품에 비해 가격면에서 다소 비싸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친환경급식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친환경급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유아에 대한 친환경급식은 올바른 식습관과 튼튼한 기초체력 형성, 아토피 등 다양한 질병 예방은 물론 원만한 성격 형성과 학습 집중력 배양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은 오래 전부터 관련 조례에 명시된 데다 민선 5기 우근민 제주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면서 "예산 부족과 관리상의 문제를 내세워 어린이집 친환경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도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시행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를 위해선 도정의 의지와 도민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친환경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결국 친환경급식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라며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농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제주도내 어린이집은 총 568개소로, 2만4895명의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주5일 친환경급식 시행을 위해선 연간 약 17억 9200만원의 소요되는데 넉넉잡아 20억원으로 아동들의 건강과 두뇌향상, 올바른 인격 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은 결코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성 교육, 유아기부터 시작해야"

제주보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복지공동체포럼 주최로 5월 19일 제주한라대학교 금호미래관에서 열린 '제주보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옥정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지 교수는 "최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아교육이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 유아기 환경교육을 다룬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아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선 먼저 국가적인 환경교육 정책 설정 및 계획에 '유아기부터 환경교육이 시작돼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호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은 유아기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유아기 환경교육 관련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아울러 세계 선진국가의 유아기 환경교육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유아교육기관의 에너지 사용 방식이나 생활 방식 전반을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태양에너지시설 설치 지원, 생태발자국 계산 및 개선 방안 모색 등이 그 것이다.

그는 "유아기 때부터 지역사회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들이라 할지라도 지속가능성에 근거해 유치원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잇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유아기 환경교육에 대해 "유아교육, 유아교사교육, 더 나아가 부모교육까지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 설립과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응식 제주관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제주의 지속가능성과 제주보육'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제주생태섬 전통문화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생태섬 전통문화 속에는 생명사상, 여성주의사상, 공동체사상이 담겨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제는 제주의 하늘, 땅, 사람이라는 친환적인 보육을 통해 제주아이를 키워야 한다"며 올레놀이터 운영을 제안했다.

제주 고유의 공동체 문화인 '괸당' 문화 복원과 마을보육공동체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제주 마을가꾸기 사업에 제주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 보육관광 시대를 열어 제주보육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송 교수는 "제주보육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어느 누구 혼자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지방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민간단체와의 합치, 시민과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가 앞장서고 제주보육 관련 단체와 도민들이 이에 적극 협력하고 제 역할을 다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연중기획 '이웃사랑 지원봉사' ⑸미용봉사자 박은영씨

소외 노인 찾아 미용봉사 '사랑의 가위손'

박은영씨, 미용실 직원들과 9년째 봉사활동
매달 농촌지역 방문해 어르신들 '머리 손질'

"부끄럽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을 이용해 머리를 손질해 드린 것뿐인데…."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9년째 미용 봉사를 해온 박은영씨(39·여)는 사회복지신문과의 인터뷰 내내 어색하고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인터뷰는 5월 17일 박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중앙여고 인근에 위치한 박셈미용실에서 진행됐다.

박씨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는 게 부끄럽다"며 겸손해 했다.

그가 미용봉사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 당시 미용실 고객이었던 제주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직원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했는데 마침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이후 복지관 직원의 소개로 매월 둘째주 화요일마다 미용실 직원 2~3명과 함께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한림읍과 애월읍 등 농촌마을을 찾아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머리를 손질해 줬다.

사실 처음엔 직원들의 불만이 없지 않았다. 모처럼 쉬는 날에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봉사활동을 간다는 게 마뜩잖았던 것이다. 그러나 봉사활동 횟수가 늘어날수록 직원들의 불평은 사라지고 오히려 더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박씨는 "직원들이 동참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봉사활동을 이어가지 못했을 것"이라며 "함께 해 준 직원들에게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시작된 봉사활동은 벌써 9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은 의외로 뿌듯함과 커다란 보람을 안겨줬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다보니 봉사는 생활의 일부가 돼 갔다.

그동안 이들의 손에 머리를 맡긴 사람만 대략 500여명에 이른다. 대부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정이 들었던 어르신과 영원히 이별해야 하는 아픔도 경험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나비할아버지'를 잊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의 집 뜰에는 예쁜 꽃이 많아 항상 나비가 날아다녔어요. 생전에 할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방문할 때마다 '늘 고맙다'는 내용의 마음을 담은 쪽지를 전해주셨어요. 마치 연애편지를 받는 듯한 기분에 항상 설레였어요." 박씨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어르신들이 머리 손질을 받으신 후 환하게 웃으실 때 보람을 느낀다"며 "힘이 닿는 한 계속 미용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의식품을 이웃과 함께' ⑴산방미곡 오영봉 대표

"나눔은 결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산방미곡 오영봉 대표, 해마다 푸드뱅크에 쌀 기탁
저소득층에 4년간 3224㎏ 530만원 어치 전달 '귀감'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수년째 식품기부를 통해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이가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제주시 내도동에서 쌀 전문 도매업체인 산방미곡을 운영하는 오영봉씨(51)가 그 주인공.

그는 지난 2007년 7월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인 제주광역푸드뱅크에 쌀 100kg을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년여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530여 만원 상당의 쌀 3224kg을 기탁했다.

이 쌀은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상설 매장 형태의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전달됐다.

주식인 쌀은 푸드마켓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식품 중 하나다.

특히 오씨가 기탁한 쌀은 철원, 이천 등 쌀 생산지로 유명한 지역에서 재배된 쌀로 품질이 뛰어나고 맛도 좋아 이용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푸드마켓 입장에서는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기부식품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터에 쌀 걱정을 덜어준 소중한 후원자인 셈이다.

"나눔은 결코 거창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조그마한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있는 의미 있는 입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쓰면 됩니다."

그의 인생에도 곡절은 있었다.

지난 1999년 외환위기(IMF) 직후 자신이 운영하던 귀금속 도매상이 망한 뒤 한동안 실의에 빠져 지냈다. 돈을 쉽게 번 만큼 쉽게 썼던 게 화근이었다. 마음을 고쳐먹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다시 일어서고 싶었다.

다시 사업에 도전한 것은 2001년. 이번엔 쌀 장사였다. 한 번 실패의 쓴 맛을 본 터라 누구보다 열심히 일에만 매달린 끝에 결국 재기에 성공했다.

이런 곡절이 있었기에 더욱 더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나눔 바이러스는 가족에게도 전파됐다.

그의 부인 안순영씨(50)는 최근 3년간 제주시 내도동에 사는 독거노인 2~3가구에 매달 정기적으로 쌀을 기부해왔다.

'나눔은 습관'이라고 말하는 오씨는 각박한 세태 속에 '나눔의 힘'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식품나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는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늘 감사하고 기쁘다"며 "티끌의 나눔도, 아주 작은 베풂도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만큼 나눔의 씨앗이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